

사회

공교육 살리기는 교장선생님 나름

광주지역 고교 교장들 열정에 학생 실력 '쑥쑥'

광주제일고 김병재 교장은 매일 오전 7시면 출근해 밤 11시 무렵 퇴근한다.

김 교장의 하루 일과는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후 6시가 되면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교사의 야간자율 학습 등을 돕는다. 야간에는 교사와 학생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게 주요 업무다. 3학년이 학교에 나와 공부하는 토요일도 예외는 없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다 보니 집에선 김 교장을 '하숙생'이라고 부른다.

광주상일여고 박도훈 교장의 하루 일과도 비슷하다. 지난 2006년 부임한 박 교장은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에 헌신의 힘을 쏟고 있다. 교내 곳곳에는 산호석으로 장식된 벽면에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걸려있고, 물이 흐르는 실내정원, 안락한 소파, 전통미를 살린 장독대와 색동 조형물 분수 등이 배치돼 있다. 특급호텔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박 교장의 노력 덕분에 상일여고 학생들의 성적도 지난해 3월 대비 9월의 1등급 신장률이 외국어 106%, 언어 58.3%, 수리 36.9%, 사회탐구 207% 등 전 영역에 걸쳐

수직 상승했다.

과거엔 학교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혔던 학교장들이 '실력 광주' 수호를 위해 탈권위주의를 실천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습 분위기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계에선 일선 고교 교장들의 이 같은 열정적 교육열 덕분에 광주가 지난 5년간 수능 전국 1위의 명성을 기록해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교장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하지만 광주에서 이를 그대로 지키는 학교장은 없다. 그렇다고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다. 교감까지는 하루 4시간까지 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기관장인 학교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교장들의 이같은 노력은 제자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고교 교장들은 가장 먼저 출근해 학교 주변을 청소하는가 하면 등교하는 학생들을 교문에서 직접 맞이한다.

이 같은 학교장들의 탈권위주의

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장선생님이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면서 "처음엔 감시하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 상담할 수 있고, 교사들의 고충도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장선생님이 열성적이라보니, 교사도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수는 1등 비결은 이 같이 모두의 힘이 모인 덕분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김병재 교장은 "광주지역 교장들의 교육열은 전국에서도 이미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교장이 솔선수범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이를 신뢰해 준다면 일등 광주교육의 명성은 계속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 모임에서도 광주지역 교장들의 교육열이 화제가 되곤 한다. 이들의 사기 독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야호! 방학이다” 15일 광주지역 초등학교 중 처음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간 북구 일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정성껏 만든 방학 생활계획표를 들어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죽음 부른 보험사기

보험금 타려 가게 방화... 공범자 숨지고 4명 부상

북부경찰 2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15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가게에 불을 질러 사상자를 낸 김모(28)씨 등 2명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죄 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5일 새벽 5시에 광주 북구 용봉동 자신이 운영하는 S와인바에 휘발유

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로 공범 이모(23)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 건물 4층에 있던 최모(여·31)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동업자인 김씨 등은 2개월 전 모 화재보험(최대 10억원)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공범 이씨의 외제차에서 휘발유

40ℓ를 빼내 자신의 가게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서로 역할을 분담해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화재 직후 가게에서 휘발유분이 검출되고 김씨 명의로 화재 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신종플루 환자 10명으로

광주·전남 추가 발생 3명 완치·7명은 격리

광주·전남지역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종 플루에 감염된 환자 수는 모두 1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3명은 완치됐고 7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10명 중 5명은 최근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열린 대학생 종교행사를 다녀온 뒤 감염증세가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미국과 필리핀 등지를 여행했거나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종플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여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시·도는 이에 따라 시·군·구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2천200명 분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는 등 신종 플루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150mm 폭우

주택 20동 붕괴 피해

15일 새벽 남부지방에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쏟아진 폭우로 전남지역에서는 주택 20동이 침수되고, 하천 3곳이 일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보성군 벌교읍에서는 주택 18동이 침수됐고, 가로수 2개가 넘어졌다. 특히 장흥군 장동면에서는 이날 새벽 3시께 시간당 7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 2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856) 김장두



황룡강 급류에 초등생 실종

15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황룡강 세월교에서 허모(9)양이 급류에 빠져 실종됐다.

허양의 아버지(40)에 따르면 세월교에서 불던 팔이 발을 헛디뎠다리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허양이 발을 헛디뎠다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안전모 안써 오토바이 절도 들통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 청소년 2명이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절도 행각도 들통.

○광주북부경찰은 15일 A(18)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곧바로 달아나갔다는 것.

○경찰은 순찰차로 2km 가량 추격 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날 새벽 5시에 북구 오치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도 적발.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금은방 강도 베트남서 인도 지연...수사 난항

경찰 "7월 내 가능"

베트남 공안당국과 인터폴에 의해 체포·구금된 광주 금은방 3억원대 강도 사건 용의자의 국내 인도가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신병 인도가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금은방 3억원대 4인조 강도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남부경찰은 지난 5일 베트남에서 현지 공안에 의해 구금중인 편모(50)씨의 신병이 8일째 인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일당 박모(58)씨를 특수 강도 혐의 등으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베트남에서 붙잡힌 편씨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도피중인 일당 2명에 대한 수사망을 좁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지 사정 등으로 편씨에 대한 신병인수가 늦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 공안당국의 결재가 지연되면서 편씨의 송환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2일

편씨가 베트남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이르면 8일께 송환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이날 말에나 편씨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4월 광주시 남구 김모(38)씨 형제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침입,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고시학원만 따르라!! www.hanbitgosi.co.kr

정부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특채 통해 3년간 기능직 정원의 15%씩 일반직 전환!!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토/일) 오전 10:00 ~ 13:00 시 | 오후 14:00 ~ 17:00 행정학 | 2개월완성 합격맞춤강의 개강 7월 18일

수석합격 | 모직! 일반직전환 특채대비를 위한 전문강사진 전문교재 | 핵심이론과 짚집게 문제풀이 특강 | 일반직 전환특채 합격도 한빛이 주도한다! 압도적 1위! 100%적중도전

전국 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9급 공무원 합격의 메카는 한빛에 있다 -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

광주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621234-0234